

특집 | 공예문화체험공간

작가탐방 | '조용한 울림'으로 세계무대를 사로잡다...목조형작가 최병훈

젊은작가 | 섬유, 빛의 유희를 쫓다. 섬유예술가 윤정희

포커스 | 서울리빙디자인페어 · 2007 제4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06 Seung-Hye Kim

화려함... 그 이상, 그 다음은 없다
보이지 않을수록 오히려 깊이가 더한 법...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보다는
성숙된 내면의 성찰에 귀 기울이고 싶다.

- 작가 최병훈 -



1

‘조용한 울림’으로 세계무대를 사로잡다... 목조형작가 최병훈

글 | 정승은 기자

작가 최병훈. 시끌벅적 화려한 치장이 아닌 조용한 울림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7년 3월, 한국 작가 최초로 스위스 바젤 근교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 www.design-museum.de)」에 작품이 소장된 것이다.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은 세계적인 가구 제조사 「비트라(Vitra)」가 설립한 곳으로, 가구 역사에 남을 만한 주요 작품들을 소장해 집대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명실 공히 디자인 분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미술관의 한국작가 입성은 국내 미술계의 큰 경사. 2006년 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위대한 의자, 20세기의 디자인:100 Years-100 Chairs」에서 작가의 작품을 눈여겨봤던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설립자이자 관장인 '알렉산더 폰 페게작(Alexander von Vegesack)'이 3월에 직접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해 소장 의사를 전했다.

그의 작품 「태초의 잔상(afterimage) 05-222, 2005」과 「태초의 잔상(afterimage) 07-244, 2007」은 이제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의 6,000여 종 세계 명작 컬렉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발자취를 남긴 작가 최병훈만이 지닌 '그것'은 무엇일까?



2



최병훈 작가는 작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국제무대에서
외국작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 정체
성'. 그는 '근본적으로 나는 다르다'를 강조한다. '다르다'는 것은
내가 뒤에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시작한
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다름의 가치=문화정체성'이
란 생각으로 한국작가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대성'이다. 고려시대 청자가 현재까지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미감을 담고 있기 때문. 현대
에도 여전히 고려청자 그대로를 똑같이 재현만한다면 단순한 리
바이벌밖에 안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 시대의 정신이 담
겨있어야 살아있는 공예며 예술이라는 신념은 작가의 작업에 새

로운 자극제가 된다.

세계화에 발맞춘 '보편적 가치 추구' 역시 작업 전
반의 모토다. 작품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은 즉, 보편적 가치를 획득했다는 것. 내 작업에만 몰두해 갇혀있
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통하는 보편적 가치
를 추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독창성'. 자신의 작품세계를 확고히 하는 작가적 독창
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곧 문화 정체성, 보편적 가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최병훈 작가의 작업 저변에는 청년 못지않은 열정적인 가
치관이 꿈틀댄다. 고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넓은 바다를 향해 힘
찬 물줄기를 내뿜는... 그래서 그는 아직 모든 것이 '진행형'이다.

4

최병훈 작가를 말할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 바로 '아트퍼니처(Art furniture)'다. 예술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조형적인 가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80년대 이후부터 이를 이끌어 온 현대목공예계의 주역이기 때문. 아트퍼니처는 생활 속에서 쓰일 땐 가구로서 기능적인 역할을, 사용되지 않을 땐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조형적 역할을 하는 팔방미인이다. 즉, 디자이너가 갖는 기능에 대한 개념, 공예가의 소재에 대한 이해 및 섬세함이 함께 어우러진 결정체 인 것. 그의 아트퍼니처는 1983년부터 선보인 「채집된 곤충」 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시골에서 보낸 어린시절의 아름다운 기억 중 생명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꼈던 곤충채집 경험을 모티브로 한 작업이다. 흑단과 장미목으로 곤충의 형상을 나타낸 조형물에 서랍 기능을 첨가한 작품은 당시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기능과 조형을 결합해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길을 모색한 시기였다.

1988년부터 시작된 「태초의 바람」 시리즈는 그동안의 설명적인 형태에서 극도로 간결한 선과 단순함으로 방향이 달라졌다. 특히 그간의 목재 작업에 '돌'이라는 다른 요소가 나타난 주요 시점. 화강암과 결이 고운 나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만들어 내는 '대비', 한편으론 자연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재료의 '조화'를 수려한 선으로 표현한다. 이 같은 특징은 90년대에 들어와 더욱 부각 되었으며, 이후 「태초의 소리」 시리즈, 「태초의 잔상」 시리즈를 통해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 작업의 기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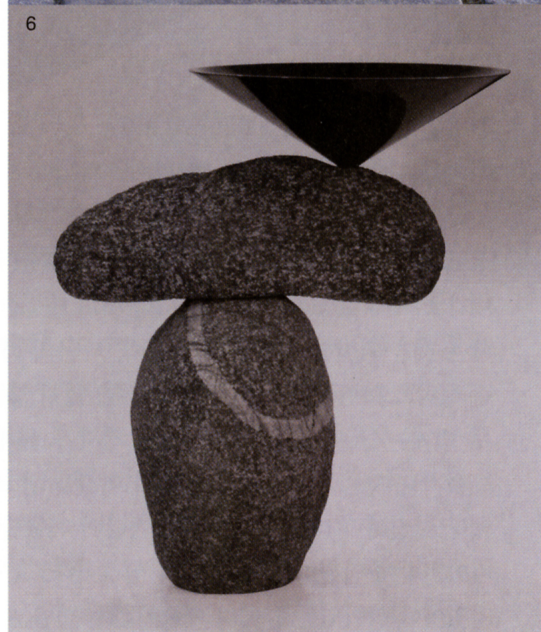
더욱 더 단순해진 유기적 곡선이 나타난 것은 2000년 이후부터다. 그 계기는 1996년 파리 다운타운 화랑(Galerie DOWNTOWN francois laffanour) 전시. 당시 전시 서문을 통해 미술사학자 안귀숙은 작가 특유의 선을 '부드러운 단순미', '유기적 모던(Organic Modern)'으로 표현했다.

2006년 전시는 새로운 재료 등장이 핵심. 자연적인 마블링 효과를 가진 대리석과 전통적인 천연 옷칠을 7~8회 입힌 단풍나무를 선보인 것이다. 가벼운 나무



5

6





최병훈(Choi, byung hoon)

와 무거운 돌의 '양감 대비', 검은색 옷칠과 밝은 색 대리석의 '색채 대비'는 그동안의 대비효과를 한 차원 더 향상시켰다.

오랜 시간을 거쳐 작업의 형태는 조금씩 변화해 왔지만, 그의 작품 안엔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조용한 울림'...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동양의 범종에서 울려 퍼지는 깊고 청아한 소리가 들린다. 밖으로 과시하기보단 안으로 겸허함을 담는 작가의 작품은 명상과 사유의 미학으로 함축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제적인 시선을 사로잡은 최병훈 작가의 매력 아닐까. 조현화랑 초대로 참여하는 제6회 2007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2007 | 5.9~13 코엑스 태평양홀·인도양홀)를 통해 그의 감각적인 작품을 직접 만나보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가구디자인전공) 졸업
- 핀란드 헬싱키 미술디자인대학 연구교수,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대학 연구교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1993~200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1999~2006), 서울공예대전 추진위원장(2000), 홍익대학교 학생처장(2002~2004) 역임
- 최병훈 아트페어전(Galerie DOWNTOWN francois laffanour, 파리, 프랑스, 2006) 외 개인전 11회
- S.O.F.A New York(뉴욕, 미국, 2006), Design Miami 2006(마이애미, 미국, 2006) 외 국내외 작품전 다수
- 제2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상(1987), 한국 공예가협회상(1989), 올해의 디자인상(월간 디자인, 1996) 수상
-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바일 암 라인, 독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제네바, 스위스), 청와대 본관 로비 및 접견실(서울, 한국), 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한국), 서울시립미술관(서울, 한국) 외 다수 작품 미술관 소장
- 현재 홍익대학교 박물관장 및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교수, 한국가구학회장



- 1 「태초의 잔상(afterimage) 07-244」 호도나무 적층성형 · 마천석, 1,700×550×900mm, 2007(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소장)
- 2 「태초의 잔상(afterimage) 05-222」 단풍나무 위 흑칠 · 자연석, ?510×100mm, 2005(비트라 디자인 미술관 소장)
- 3 「태초의 잔상(afterimage) 07-246」 너도밤나무 적층성형 · 대리석, 1,700×550×900mm, 2007
- 4 「태초의 잔상(afterimage) 07-247」 단풍나무 · 자연석, 3,100×950×740mm, 2007
- 5 「태초의 잔상(afterimage) 05-225」 흑단, 830×360×810mm, 2005
- 6 「태초의 잔상(afterimage) 9637」 단풍나무 · 자연석, 1,750×540×430mm
- 7 「태초의 잔상(afterimage) 05-223」 대리석 · 자연석, 650×420×450mm, 2005
- 8 「태초의 잔상(afterimage) 04-213」 자작나무 위 흑칠 · 자연석, 600×485×785mm, 2004



목조형의 새로운 세계
'아트퍼니처(Art Furniture)'
아메리칸
하드우드 포럼
American Hardwood



'하드우드(Hardwood)'란 재질이 단단한 목재를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잎이 넓은 활엽수를 지칭한다. 미국활엽수수출협회는 아메리칸 하드우드의 대명사인 'Red oak(붉은 참나무)'를 소재로 한국적 아름다움을 담은 아트퍼니처를 선보였다. 가구의 기능에 예술적 아름다움과 조형미를 접목시킨 아트퍼니처. 복합적인 기능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정서가 반영된 목조형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꽃과 새, 나무 등 서정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운 한국 아트퍼니처를 개척한 최승천 교수(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단아한 형태미를 강조하며 미니멀한 작업을 하는 최병훈 교수(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삶과 자연에 대한 관조가 느껴지는 최승천 교수의 작품은 서정적인 형태와 한국적인 은은한 색조로 가구에 예술성을 더한다. 앞부분에 놓아 둔 돌의 무게로 뒷다리 없이 기능을 유지하는 의자는 최병훈 교수의 '태초의 잔상' 시리즈. 기능과 예술이 결합된 현대적인미를 담고 있다.

입구에 커다란 기린이 있는 신비스러운 공간디자인은 최근 '매긴나인 브릿지', '플라스틱 아일랜드' 등 패션브랜드와 작업하며 독특한 디자인을 인정받은 윤영권 디자이너(떼 컴포지션 대표) 작품.

▲ 최승천 作
▼ 최병훈 作

